

장흥 물축제 개막 '무더위 독립선언'

내달 1일까지 탐진강·우드랜드 일원서 국내 최고의 출연진 축하무대 마련



대한민국 여름축제의 최강자 제12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26일 장흥군에서 막을 올렸다. 올해 물축제는 '젊음이 물씬 장흥에 흠뻑'이란 주제로 탐진강과 편백숲 우드랜드 일원에서 펼쳐지고 있다. 축제 첫날인 26일은 비야이, 노라조, 제시 등으로 구성된 축하공연단이 개막무대를 뜨겁게 달궜다.

개막식의 뜨거운 분위기는 물축제의 핵심 야간 프로그램으로 떠오른 워터락 풀파티로 이어졌다. 이날 워터락 풀파티에는 DJ에나와 허조교가 출연해 신나는 댄스 파티와 물놀이를 이끌었다. 물축제 둘째날인 27일 오후 1시에 시작된 살수대접 퍼레이드에는 구름인파가 몰려 장흥읍 중앙로를 빼곡이 채웠다. 살수대접 거리 퍼레이드는 참여형 축제로의 변화를 선언한 물축제의 메인 이벤트다. 올해 살수대접 퍼레이드는 안중근과 물이 만나는 역사 퍼레이드로 준비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안중근 의사를 모신 사람이 있는 장흥군의 역사적 의미를 모티브로 물싸움 거리행진을 진행하는 것이다. 군민회관 앞에서 '더위로의 독립선언'을 한 퍼레이드 행렬은 '무더위와의 싸움'을 이어가며 물축제장으로 발길을 이어갔다. 매일 오후 2시에 벌어지는 지상최대의 물싸움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워터락 스테이지, 아쿠아 테이너, 확장된 가설 수영장 등 공간프레임이 예년에 비해 웅장해지면서 더욱 박진감 넘치는 물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매일 오후 3시 탐진강에서는 '황금물고기잡이'가 펼쳐진다. 황금 물고기를 잡은 참가자에게는 인증패와 장흥 특산품이 선물로 주어졌다. 29일 저녁에는 최근 트로트 열풍을 몰고 온 가수 송가인도 만나볼 수 있

다. 송가인을 비롯한 진시몬, 강민주, 이혜디 등의 초대가수는 29일 오후 7시 물축제 주무대에서 진행되는 북포MBC 공개방송에 출연한다. 이 밖에도 해변 분위기의 워터 '장흥 뿌리주'와 워터슬라이드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워터그라운드'도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바나나보트, 우든보트, 카약, 수상자전거, 대형 물놀이장, 뗏목타기 등 물 속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즐길거리도 인기다. 탐진강변 4차선 도로 아래 굴다리 구간 500m에는 트리아트론, 수중포토존, 세계먹거리 체험을 운영한다. 천연염색, 가훈씨주기, 귀촌 홍보관 등의 다양한 홍보·체험부스도 마련됐다. 정중순 군수는 "장남진 장흥 물축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름축제"라며, "물축제를 찾는 모든 분들이 탐진강 맑은 물이 전하는 넉넉한 에너지 속에서 휴식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모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6일 막을 올린 제12회 정남진 물축제는 오는 8월 1일까지 장흥군 탐진강과 우드랜드 일원에서 열린다.

화순군,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

화순군이 올해 친환경 인증면적(1,719ha) 목표 달성을 위해 '친환경농업 단지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해 화순 지역 친환경 인증면적은 유기농 147ha, 유기 전환기 1023ha, 무농약 186ha 등 1356ha였다. 올해는 1719ha(유기농 236, 유기 전환기 1296, 무농약 187)를 목표로 친환경 농업단지 협약을 체결해 지난해보다 363ha를 확대할 계획이다. 군은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를 위해 친환경농업 단지조성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군은 논 타작물 재배지 중

옥수수 등 조식료 재배지에 주목한다. 올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의 신청면적(274ha) 중 옥수수 등 조식료 재배지가 176ha다. 군은 조식료 재배지 176ha 중 100ha를 친환경농업 단지로 조성했다. 친환경농업 단지로 조성되는 조식료 재배단지는 ha당 단지조성사업비 70만 원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비 430만 원을 지원 받게 된다. 군이 계획한 친환경 단지조성과 인증면적 목표를 달성하면 총 지원금은 16억40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화순=박순철 기자**

나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75명 위촉

나주시는 최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6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7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 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심화교육을 시작으로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 6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1년 6개월 임기 동안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 필요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에 앞장설 계획이다. 시는 이날 위촉식을 통해 제6기 위원들을 대표할 위원장에 정광호(씨송월동), 부위원장에 한송호(씨(성북동)

를 각각 선출했으며, 총무·복지, 미래전략산업, 안전도시건설 등 3개 분과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어,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위원장을 감사로 초청, 예산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를 주제로 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심화교육을 실시했다. 제6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각 분과별 사업 현장 확인, 사업부서 협의 등을 거쳐, 9월부터 제안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분과위에서 우선순위가 정해진 사업은 주민참여위원회를 통해, 내년도 본예산으로 편성된다.

장성군, '친환경 벼 공동방제' 효과 특출

장성군이 '친환경 벼 재배단지 공동방제'를 적기에 추진하여 병해충 예방에 특출한 효과를 거뒀다. 장성군은 올해 총 3회에 걸쳐 '친환경 벼 재배단지 공동방제'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군비 1억여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방제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친환경 벼 재배단지 공동방제 지원사업'은 드론과 광역방제기를 사용해 친환경 생물약제를 살포하여 병해충을 예방하는 사업이다. 장성군은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친환경 벼 공동방제 지원사업을 추진해 매년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장성군은 지난 4일부터 16일까지 삼계면 상도단지를 포함한 32단지 467ha 면적의 '1차 공동방제'를 실시했다. 특히 이번 공동방제는 타 시군의 친환경 벼 재배단지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딱지벌레 병해충 피해를 사전에 막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장성군은 타 시군보다 10여일 정도 앞당긴 적기방제로 병해충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서춘경 장성군농업경영인회장은 "타 시군에는 없는 친환경 벼 재배단지 공동방제 지원비로 친환경 농가의 적기방제를 지원받아 딱지벌레 등 병해충 예방에 큰 도움 받았다"고 말했다. 장성군은 남은 2회의 공동방제도 적기에 실시하여 병해충 사전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 지속적인 병해충 예방과 현장지도 강화를 통해 환경 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 및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농촌의 고령화·노령화?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고령농 경영비부담을 줄여 친환경 쌀 품질과 생산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라며 "영농정책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장성군은 친환경 벼 재배단지 공동방제 지원사업 외에도 친환경경사차 처리제 지원, 유기질비료 지원, 친환경단지 조성사업, 친환경인증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친환경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다.

함평군의회, 日 경제보복 규탄 결의안 발의

함평군의회는 26일 제250회 임시회에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발표하고,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들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소재의 수출을 규제하는 일본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 협정 등에도 정면 배치

되는 것으로 국제사회 경제 전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일본 정부의 행태를 비판했다. 이어 "세계질서를 위협하는 일본의 불법적인 경제 보복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 "정부는 일본의 조치를 전화 위복의 기회로 삼아 장기적,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치·경제적 입장 차이를 초월해 초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함평=김광춘 기자**



담양군청소년문화의집, 체험 프로그램 운영

담양군이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여름방학 기간 청소년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방학 프로그램은 오는 31일부터 8월 21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10시 30분)과 오후(15시) 각각 다른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당일 점수를 통해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청소년들의 관심과 수요가 높은 '다함께 퍼즐 맞추기', '나만의 슬라임 만들기'가 선정됨에

따라 청소년에게 큰 인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함께 퍼즐 맞추기는 혼자서 맞추기 어려운 500피스와 1,000피스 퍼즐로 또래들과 함께 퍼즐을 맞추는 과정에서 협동심과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으며, 완성된 작품은 액자로 만들어 청소년문화의집에 전시할 예정이다. **담양=박종영 기자**

